

## 1. 창립과정

1987년 이전은 전북여객(주)이 전북도청의 관리하에 전북지역을 직행과 완행버스로 독점 운행하던 시기였으나,

1987년 이후 시, 군내 지역을 운행하는 완행버스는 소속 시, 군이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군산, 옥구지역을 운행하던 전북여객(주) 소속 99대 차량의 주주들은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면서, 분리 독립을 협의하였고 단일 회사보다는 서로가 경쟁하는 2개 회사로 나눌 것으로 결정하고,

군산지역 최대 주주였던 장정익은 발 빠르게 뜻을 같이하는 30여명의 주주들과 협력하여 전북여객(주)에서 44대를 분리하여 1987년 12월 발기인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추대로 초대 대표이사 되었으며 1988년 1월 군산시 미룡동에 차고지를 준비하여 약120명의 종사원과 함께 우성여객자동차(주)로 상호를 등록하고 운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2. 정착기

1980년~1990년대는 군산시와 옥구군이 분할되어 있었으며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군산시 외곽 및 옥구군 인구가 많았던 시기로, 요금이 저렴한 버스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로 통학하던 때여서 아침, 저녁 등하교 시간대에는 항상 만원을 이루었으며, 그 외 시간 또한 구시장, (구)역전, 터미널, 중앙로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역시 많은 시민이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여 호황을 누렸다.

그 당시 최대 68대의 시내버스와 약170여명의 종사원이 1일 평균 330km의 거리를 60개 노선으로 나누어 운행하였다.

2000년 미룡동 차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차고지 부족으로 부득이 옥구읍 옥정리에 11,601㎡ 부지를 확보하여 2001년 1월 차고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사업에 동참하여 매년 저감 및 연료비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지역 최초

로 3대의 친환경 차량인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여 군산시의 대기환경 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전국 최초로 천연가스버스 전차량 100% 도입이라는 업적을 세우기도 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08년 12월 전북 최초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사회적 모범이 되었다.

고군산 연결도로(비응도~선유도) 구간의 관광 효과 및 교통난을 해소키 위해 2018년 2월 비수도권 최초로 2층버스를 도입하여 53 km의 거리를 1일 15회 운행함으로써 군산지역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였으며 승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모범사례가 되었다.

### 3. 위기의 극복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옥구군 지역 운행거리 요금이 폐지되고 단일요금으로 변화하였으며, 자가용의 증가, 도로교통의 정체로 인한 버스 운행시간 증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학원지입차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직접적인 수입금 감소로 이어져 점차 17대의 차량을 감차하고 노선 합병, 감축 등을 감행하며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검과 절약은 기본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회계처리로 자치단체를 이해시키고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이끌어 임금체불 등을 극복하였다.

### 4. 현재와 미래

현재 운수업체의 대다수가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버스회사의 자급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우리나라 역시 광역시를 비롯하여 대도시가 노선관리 및 수입금을 버스회사와 공동관리하는 형태의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당국과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무료환승, 중고생 교통비지원, 연료비 절감을 위한 전기버스 도입, 시간선제 노선 개편 시행 등을 진행 중이며, 추후 지자체에 노약자의 교통비 지원과 더 나아가 무제한 무임승차 제도화 추진에 노력하여 군산시민과 외지인의 군산 홍보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